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첫 독해 독해>

- 1) 첫 문단에서는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 집중
- 2) 복잡하고 다양한 말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 3)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뒷 문단을 예측하고 뒤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집중하자

1) 첫 문단의 개념 중 글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개념은 주로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를 통해서 등장한다 이 내용은 **별표치고 기억하자**

※ **정의/ 비교 대조 / 상관 관계**는 기억하기

2) 문단에서 문장들은 주제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첫 문단에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읽을 때는 **앞 뒤 문장과 연결시키자.**

※ **어려운 내용은 앞 뒤 문장과 연결해 이해하기**

3) 서론을 이해한 뒤에는 **첫 문단에서 부족한 설명을 바탕으로 뒷 문단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내용을 채워주는 **뒤 문단의 내용은 문제의 단골 손님이기 때문이다.** 이 부족- 설명의 패턴을 정리하자

※ **서론에서 불완전한 설명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줄 뒤 문단을 예측하기& 집중하기**

3)+

첫 문단은 불완전한 설명으로 끝나고 이는 뒤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그리고 문제는 이 충분한 설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중요한 건 이런 첫 문단과 뒤 문단의 **구조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패턴을 정리하고 이 패턴을 바탕으로 뒤 문단의 내용을 예측하자

그리고 이 예측한 정보가 나오면 집중해서 읽자

<구조>

① **A- A'**

첫 문단// **개념어(의), 형용사(예쁘다), 여러 개념어(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

뒤 문단// **개념어와 형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고 왜 예쁘지,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각 무엇인지)**

주의!

- **여러 개의 개념어가 제시되면 뒤 문단에서 각 개념어를 설명할 때 각 개념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비교 대조의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 **A- A'의 구조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로 다른 구조의 문제- 해결/ 질문- 답/ 현상- 과정 원리 등과 자주 결합한다. 어떤 개념어를 설명하면서 이 개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다.**

② **문제- (원인) &해결:**

첫 문단// **문제(혼란, 효율성이 떨어짐, 반응이 X)**

뒤 문단// **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됨**

③ **Q-A**

첫 문단// **질문(왜 그럴까.?)**

뒤 문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설명이나 대답 자체가 제시됨**

④ **현상- 과정& 원리**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첫 문단// 과학적 현상(레이저 냉각, 소리의 공명 현상)

뒤 문단//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과 원리가 제시됨

주의!

-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개념이나 전제들이 먼저 등장하게 된다

- 이 개념이나 전제들은 무시 무시한 세부 정보들과 함께 제시되기에 이 세부 정보를 대비하자

㉔ **통념- 반박**

첫 문단// 통념(사람들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는)

뒤 문단// 통념의 특정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이 제시됨

㉕ **시간의 흐름**

첫 문단// 특정 시대& 관점(18세기 미술에 대한 관점)

뒤 문단// 특정 시대에 나타나는 관점과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시됨

1) 개념 정리

명시적 내용 없음

2) 첫 문단 이해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

"영국은 서로 다른 국가들과 영향을 미치며 발전"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 설정"

"가설을 검증해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요인 규명"은 모두 토인비의 문명 중심의 역사 인식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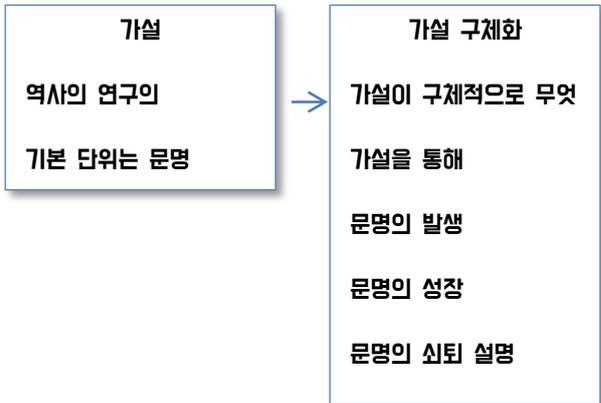
'영국이 다른 국가와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았다는 내용'과 '토인비가 정리한 가정' 그리고 '가설을 통해 파악하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 요인'은 모두 문명 중심의 역사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3) 예측하기

문명 중심의 역사관을 이야기 하면서 몇 가지 가설들(A)을 이야기 했지만 가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가설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

[K(A-A)']

이를 이해한 것과 연결해보면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문명 중심의 역사관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 가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지 이야기 할 것이다.



이제 이 뒷글에는 '가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가설을 통해 설명하는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가 등장할 것이다. 이 정보에 집중하자!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주제 독해>

1) 창의적 행동

: 창의적 행동은 응전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역경을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등장하며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끈다

2)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는 모방

: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는 모방은 문명의 발전을 이끌지 못하는 모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연장자들의 권위 강화와 인습의 지배와 연결되는 내용이며 문명의 유무가 아니라 문명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부 정보 독해>

1) 도전이 응전보다 너무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음 반대로 도전이 응전보다 너무 작으면 반응 없음// 비교 대조

2) 모방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면 문명의 발생과 발전적 변화가 만들어지지 못함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면 지속적으로 성장// 비교 대조

1.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최적의 도전과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4&5문단에서 알 수 있듯 모방은 문명의 발생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집단에서도 모방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모방의 유무가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1문단의 영구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문명으로 설정한다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3문단의 "세 가지 상호 작용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가장 강력한 도전이 아니라 최적의 도전에서 성공적 응전이 가능하다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강화되는 사회는 인습이 강조되고 발전적 변화를 겪을 수 없다.

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보기 독해:

첫째 집단은 문명을 아예 발생시키지 못함& 생활 양식만 유지

둘째 집단은 문명을 발생시켰기에 응전은 한 것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것을 보아 창조적 소수와 이들을 향한 대중의 모방은 없던 것

셋째 집단은 문명의 발생과 지속적 성장이 있기에 성공적 응전과 창조적 소수와 이들을 향한 대중의 모방이 모두 있었음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 사람들의 응전을 요구하고 문명을 이끈다는 점에서 도전과 역경이 맞다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5문단에서 문명이 아예 없는 집단의 모방이 선조와 구세대를 향했다는 것을 보면 첫째 집단은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 것이다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둘째 집단은 지속적인 성장이 실패 했기에 창조적 소수와 이들을 향한 대중의 모방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셋째 집단은 문명의 지속적 발전에 성공했기에 4문단의 내용처럼 창조적 소수와 이를 향한 대중의 모방의 이루어진 것이다.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 보기에서 알 수 있듯 셋째 집단은 강 유역으로 생활의 터전을 바꾸고 생활 방식 역시 농경 문화에 맞게 바꾸었으며 이것이 성공적 응전과 문명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3-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첫 문단 독해)

1) 첫 문단의 개념 중 글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개념은 주로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를 통해서 등장한다 이 내용은 별표치고 기억하자

※ 정의/ 비교 대조 / 상관 관계는 기억하기

2) 문단에서 문장들은 주제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는 앞 뒤 문장과 연결 시키자.

※ 어려운 내용은 앞 뒤 문장과 연결해 이해하기

3) 서론을 이해한 뒤에는 첫 문단에서 부족한 설명을 바탕으로 뒷 문단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도 이 뒷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는 만큼 부족- 설명의 패턴을 정리하고 예측한 정보가 나오면 집중하자

※ 서론에서 불완전한 설명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줄 뒷 글을 예측하기& 집중하기

1) 개념 정리

랜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 이웃한 트랙 사이도 랜드

피트: CD의 기록면 중 광선의 일부가 산란& 적게 반사되는 부분

2) 첫 문단 이해

"레이저 광선의 산란과 반사되는 효과"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랜드"

"광선이 산란되어 줄어드는 피트" 모두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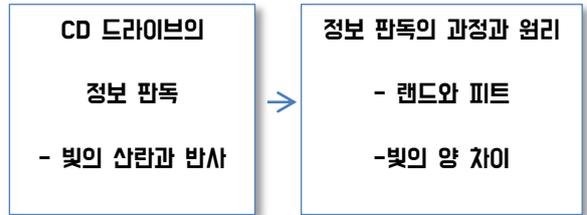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정보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랜드와 피트와 그리고 배지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억해야 한다

3) 예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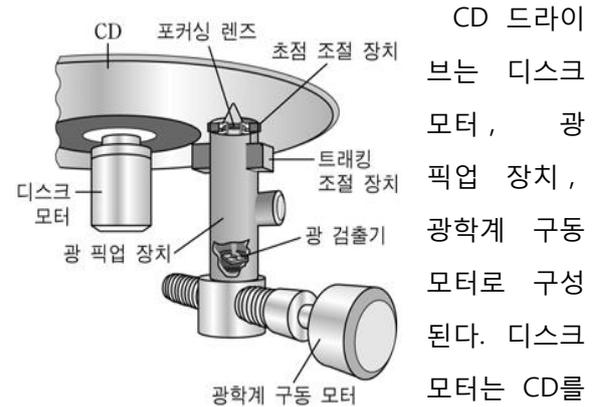
조사된 즉 쏘아진 빛이 반사되고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파악하는 현상은 제시되었지만 그에 대한 과정과 원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뒤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과정과 원리가 제시될 것이다(과정 원리)

이를 정리한 것과 연결해보면 정보를 읽어가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의 양과 관련해서 랜드와 피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뒷글에서 '정보를 읽어가는 과정'과 '랜드와 피트의 활용'이 등장할 것이다. 이 정보가 나오면 집중하자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 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 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 하는 만큼 초점 조

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주제 독해>

1) 트랙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

: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는 모두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데이터 읽기를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

<세부 정보 독해>

1) 조사되는 빛 ↑ 출력값↑// 상관 관계

2)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가 가까움- 전후 영역 길어짐. 출력값 ↑ VS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가 멀- 좌우 영역 길어짐. 좌우 영역의 출력 값 커짐// 비교 대조

3.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초점 조절 장치는 CD기록면과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포커싱 렌즈를 이동시킨다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랙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 된다.

: 3&4문단에서 알 수 있듯 광 검출기는 편차 보정에 사용되며 광 검출기의 출력값의 차이에 따라 트랙킹 조절 장치가 이동한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광 픽업 장치는 직선으로 이동한다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광 픽업 장치는 광선을 CD기록면에 조사하며 동시에 안에 있는 광 검출기를 통해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빛이 조사되며 이루어진다.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2문단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광선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피트는 빛이 산란되어 적게 반사되고 랜드는 빛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어 더 크게 많이 반사된다. 따라서 출력 값역시 랜드를 읽을 때 더 크다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4&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초점이 맞지 않다면 좌 영역과

우 영역의 출력값이 다르거나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과 전후 영역 출력 값의 합이 다르다. 따라서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 차이를 이용한 보정은 적합하지 않다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진동 등은 초점을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이 초점의 벗어남은 조사된 모양을 길어지게 하고 출력값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기도 한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상태 1>과<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보기 독해:

1: 좌 영역과 우 영역 차이 조절 필요- 우로 이동// 전후 합과 좌우 합은 같음

2: 전후 합과 좌우 합 차이 조절 필요- 멀리 이동// 좌 영역과 우 영역의 값은 같음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작다.

② <상태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③ <상태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④ <상태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 되고, <상태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⑤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 <상태 1>은 전후 합과 좌우 합이 같기에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반면 <상태 2>는 전후 출력 값이 좌우 출력 값에 비해 크기에 멀리 이동 해야 한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심신 이원론: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2) 첫 문단 이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긴밀히 연관"

"우리의 상식"

"이질성과 관련성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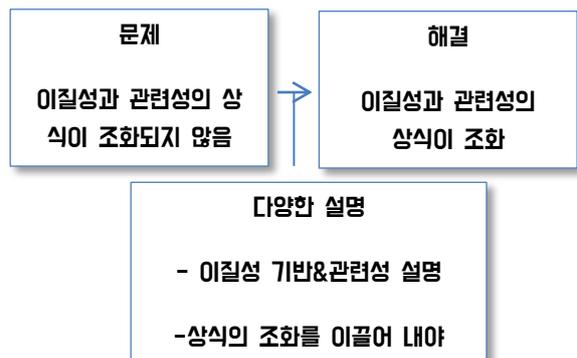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는 모두 심신 이원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한다.

심신 이원론이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은 '이질성과 관련성의 조화'와 '우리의 상식'과 연결된다

3) 예측하기

상식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다양한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어떻게 상식의 조화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KA-A') (문제-해결)

이를 이해한 것과 연결하면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질성에 기반을 두고 물질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관계시키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주제 독해>

1) 서로에게 인과적 /평행하게 일어남/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

: 이것은 모두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의 이질성을 기반으로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2)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

: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라는 서술은 심신 이원론에서 평행론 그리고 심신 일원론에 대한 설명이며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의 관련성과 연결되는 설명이다. 특히 이것은 상식과 조화되는 내용이다

<세부 정보 독해>

1)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 심신 일원론 //정의

- 각각의 정의는 기억해두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심신 이원론은 이질성이라는 상식을 기반으로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상호 작용론은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나다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며 이는 서로에게 원인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저 동시에 평행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 한다.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부수 현상론은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정신적 사건은 이 육체적 사건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이원론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 동일론은 물질의 이질성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오직 한 가지 상식인 관련성만 받아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들은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바라본다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동일론은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별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3&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육체적 사건의 원인을 육체적 사건에서 찾기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찾을 때 물질세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간을 차지 않는 정신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인데 이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이는 평행론과 동일론 모두 거부하는 내용이다.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은 부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부수현상론의 의견이다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8.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 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보기 독해: a(원인)- b(결과)/ c(결과)& b도 원인 가능

ab- 육체적 사건// c-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첫 문단 독해)

- 1) 첫 문단에서는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 집중
- 2) 복잡하고 다양한 말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 3) 부족한 부분을 재입줄 및 문단을 예측하자

1) 개념 정리

전향력: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편향되게 하는 가상의 힘

2) 첫 문단 이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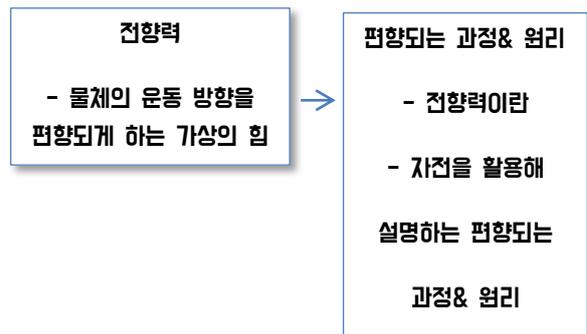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은 전향력이 적용되는 현상과 연결된다.

'자전, 운동 방향의 편향, 전향력'은 모두 연결된 개념

3) 예측하기

우선 전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에 대한 과정 원리도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전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물체의 운동방향이 편향되는 과정과 원리가 제시될 것이다.(A-A')(현상- 과정&원리)

이를 이해한 것과 연결하면 전향력을 설명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과정&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전이 등장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 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 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

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주제 독해>

1) 차이가 생기는 자전하는 속력

적도에서 가장 빠른 자전 속도와 남극과 북극에서 0이 되는 자전속도는 지구가 자전한다와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이러한 자전 속도 차이가 전향력을 만드는 원리가 될 것이다

<세부 정보 독해>

1) 위도↑ 편향되는 정도↑ & 위도에 따른 자전 속도의 차이↑ // 상관 관계

2) 지표 기준 이동 속력↑ 전향력↑ // 상관 관계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위도와 상관 없이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질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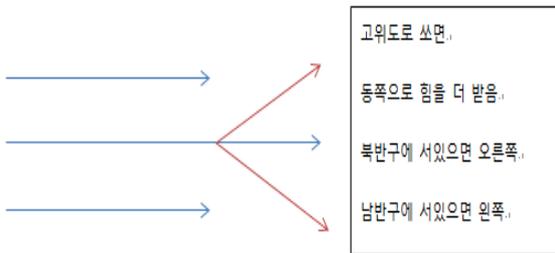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의 속도가 느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러진다.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지 동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속도가 빨라지기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체를 쏜다고 하면 이는 모두 동쪽 방향의 힘을 받게 되지만 자신이 위치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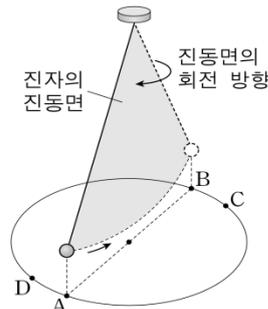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1&5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 운동하는 물체라면 전향력을 가지게 되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에 의해 편향되는 정도가 커진다. 우리나라는 적도가 아니기에 운동하는 물체라면 전향력의 영향 즉 물체의 운동 방향 편향이 만들어진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미터인 줄의 한 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보기 독해: 전향력의 적용- 오른쪽 휨/ 북반구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파리보다 더 고위도의 경우에는 편향하는 정도가 더 커져 진자가 더욱 많이 편향된다. 즉 같은 시간 대비 진자가 거리가 늘어나는 것임으로 진동면은 더 빠르게 회전해야 한다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1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명시적 내용 없음

2) 첫 문단 이해

"음악 소재를 개발.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성"

"영웅, 으뜸 화음 펼침 모티브로 다양한 변주와 변형"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해 복잡성"

"창작 방식의 전형, 넘어서야 할 산"은 모두 베토벤의 탁월한 교향곡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음악소재의 개발과 다채롭게 처리, 으뜸 화음을 모티브로 다양한 변주와 변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가락, 복잡성'은 모두 베토벤의 창작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예측하기

기본적으로 베토벤의 창작 방식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A-A') 정리했던 내용을 활용하면 뒤 문단은 베토벤의 창작 방식이 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이다.

"그렇다면"은 글을 전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이야기 한발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뒤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 실제 글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베토벤의 창작 방식의 계승과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중심 레퍼토리가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렇다면'을 만한다면 집중하고 '그렇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말에 집중하자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슈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주제 독해>

1)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

: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은 중심에 서고자 했던 염원으로 이것은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는 베토벤의 창작 방식이 주류 레퍼토리가 된 이유를 구체화하기도 한다

2) 베토벤의 음악은 보편적 진리를 향해 열린문

: 베토벤의 음악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는 서술은 베토벤의 음악을 간접의 촉발제가 아닌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관점& 읽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세부 정보 독해>

1) 순수 기악: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 정의

2) 음악: 정서의 촉발자 VS 능동적 이해의 대상(독일비평가).

1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2&3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토벤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순수 기악 즉 음악 그 자체에 대한 독일 민족의 이상이 담겨있다.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1문단을 통해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창작 방식의 전형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변주하는 베토벤의 창작 방식은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해 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가공해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주었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영웅은 변주와 변형기법을 통해 단순한 소재에서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 5문단에서 알 수 있듯 베토벤의 천재성은 과거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여기에 자신의 색채를 더한 것에 있다

12.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의 관점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무한한 음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서의 순화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중심에 서고 싶던 독일 민족의 염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와 아예 반대의 입장이다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의 관점은 언어보다는 음악 그 자체를 강조하기에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다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의 관점은 언어보다는 음악 그 자체를 강조하기에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다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3문단을 보면 언어로는 음악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함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하고 음악을 강조하고 있기에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 예술로 봐도 된다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는다

13.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보기 독해: 이탈리아& 프랑스- 언어와 결합한 음악 인정

스탕달& 로시니- 철학적이기 보다는 감정의 유발 긍정

① **솔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솔레겔은 순수 기악과 철학적 음악을 강조했기에 로시니 보다는 베토벤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③ 음악을 '얹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대학: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

훈고: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

2) 첫 문단 이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

"명명덕과 친민의 해석"은 모두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을 구체화하는 말이다

'명명덕과 친민'은 모두 공자의 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교적 관점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3) 예측하기

명명덕과 친민이라는 개념어를 제시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형용사도 제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할 것이다.(A-A')

뒤 문단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교 대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한다.

명명덕& 친민
- 공자의 말
- 다양한 해석

A의 사상
- 명명덕/ 친민



B의 사상
- 명명덕/ 친민

이제 뒷글에서 '명명덕과 친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등장할 것이다. 각 해석의 사상적 배경과 해석 간의 차이를 예측하고 집중하자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 한다. 주희는 '명덕'을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 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㉞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㉟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㊱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㊲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주제 독해>

1) 주희에게 공부

: 주희에게 공부는 명명덕으로 연결되며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질을 고치는 것이기에 같은 기질과는 같은 그룹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세부 정보 독해>

1) 반면에 쓰임에 주목// 비교 대조

2) 정의에 중의

주희의 명명덕- 본래 지니고 있는 밝은 마음이 기질에 가려지지 않았 공부하는 것

반면 정약용의 명명덕- 구체적으로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

주희의 친민- 신민. 백성들도 타고난 명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

반면 정약용의 친민- 바꾸지 말기. 백성들이 효제자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것

14.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대학은 고대 중국의 교육 기관으로 공자가 설립했다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다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주희는 기질에 가려 타고난 좋은 마음인 명덕을 발휘하지 못해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정할 것은 긍정적인 명덕을 가로막는 기질이다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 되지 않았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주희와 정약용은 신민과 친민과 관련해 훈고를 언급하고 있다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주희와 정약용을 비롯
해 유학자들은 바기를 넘어 백성이 올바른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다

⑤ 정약용의 『대학』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
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 3&4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약용은 실천을
강조하고 주희가 마음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
다.

: 주희에게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하는 것이고 정약용에
게는 구체적 실천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
으로 ㉡를 강조 하였다.

: 주희와 정약용은 명명덕은 백성 단위까지 확대시키는 것
은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명명덕을 위한 수단으로서 친민
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
을 실천하는 것 으로 보았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구체적 덕목의 실행은 정약
용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3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신민을 통해 백성들은 효제자를 실
천하는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 내었다고 보았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약용은 백성을 새롭게 만들었다
는 의미에서 신민도 가능하지만 원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16.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
로 적절한 것은?

<보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
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
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
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
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보기 독해: 친민으로의 수정/정약용 처럼/ 명덕을 행동이 아
니라 마음으로 해서 비판**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
르다고 보았다.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
의 해석과 일치한다.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
가 있다고 보았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대로 왕양명은 백성은 가르치기 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17.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인도(引導)해야

② ㉡ : 지시(指示)해야

③ ㉢ : 개편(改編)했다

④ ㉣ : 도착(到着)할

⑤ ㉤ : 쇄신(刷新)하고자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첫 문단 독해)

1) 첫 문단의 개념 중 글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개념은 주로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를 통해서 등장한다 이 내용은 별표치고 기억하자

※ 정의/ 비교 대조 / 상관 관계는 기억하기

2) 문단에서 문장들은 주제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는 앞 뒤 문장과 연결 시키자.

※ 어려운 내용은 앞 뒤 문장과 연결해 이해하기

3) 서론을 이해한 뒤에는 첫 문단에서 부족한 설명을 바탕으로 뒷 문단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도 이 뒷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는 만큼 부족- 설명의 패턴을 정리하고 예측한 정보가 나오면 집중하자

※ 서론에서 불완전한 설명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줄 뒷 글을 예측하기& 집중하기

1) 개념 정리

명시적 내용 없음

2) 첫 문단 이해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 거부"

"소송 검토"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많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임"은 모두 공동 소송의 진행을 구체화하는 말이다

3) 예측하기

공동 소송이라는 개념어를 제시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 문단에서는 공동 소송이 무엇인지 그 소송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 할 것이다.(A-A')

이를 이해한 부분과 결합해보면 공동 소송의 개념과 결과를 이야기 하면서 공동 소송 하에서의 비용과 배상금 등도 이야기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공동 소송

-100명 이상 모임

공동 소송 구체화

-소송의 특징& 결과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주제 독해>

1) 단체 소송에 대한 이해

: 법적으로 허용된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 중지를 청구 하게 하는 단체 소송은 공익적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곧 NOT 개인 손해 배상으로 연결된다

<세부 정보 독해>

1) 공동 소송에서 승소- 이들만 배상 VS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승소-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까지 효력 미침// 비교 대조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1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요구와 거부와 그에 대한 공동 소송이라는 사례와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동시에 이 공동 소송의 한계를 제시하고 다른 방법들도 설명한다.

㉡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대립하는 원칙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되고 있지 않다

㉣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등장하지 않는다

㉤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 소송이라는 문제 상황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공동 소송은 개인들의 손해 배상의 성격이 강하고 이때 대표 당사자는 경제적 문제와 번거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뿐 공익적 성격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5문단을 보면 '법률이 정한 단체'를 표현을 보아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고 봐야한다

㉣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소송의 진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다. 다만 1문단에서 비유적인 문제로 꺼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 개별 소송 진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 4문단을 보면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효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20.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중단과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㉒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중단과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㉓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중단과 배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㉔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개인 정보를 판매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 회사는 허술한 관리했다는 것에 책임이 있다

㉕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 하고자 한다.

: 2문단에 나와있듯이 공동 소송 역시 경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등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21. ㉑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㉑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단체 소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개인 가입자들의 공동 소송이나 집단 소송과는 다르다

㉒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5문단에서 바로 알 수 있듯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㉓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

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중립적인 단체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㉔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제품의 결함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글에서 따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

㉕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4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소비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와 공익 목적의 단체 소송은 구분된다

[22-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

각운동량 = mvr

질량↑ / 속도↑ /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 각운동량↑

돌림힘: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

2) 첫 문단 이해

"돌림힘이 없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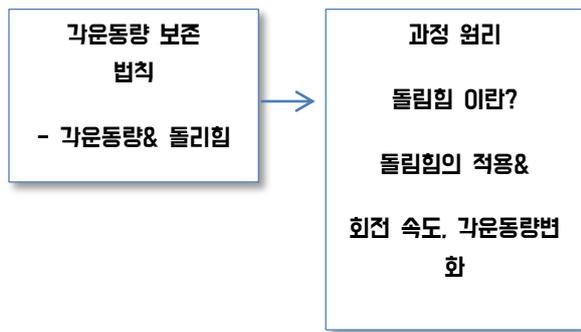
"각운동량이 변화해서 물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짐"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은 모두 돌림힘의 정의와 설명을 구체화하는 말이다

'회전 속도와 각운동량'은 반드시 외부의 힘 즉 돌림힘과 연결해서 기억해야 한다

3) 예측하기

돌림힘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구체적인 과정과 원리가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뒤에서는 돌림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돌림힘을 활용해서 물체의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과정과 원리가 등장할 것이다.(A-A')(현상- 과정 원리)



이제 뒷글을 읽으면 각운동량과 돌림힘을 중심으로 '각운동량과 돌림힘이 무엇인지'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과정과 원리'가 등장할 것이다. 집중하자!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

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폈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폈을 때 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해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주제 독해>

1) 피겨 선수가 몸을 물이고 몸을 피는 것은 모두 각속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회전 관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세부 정보 독해>

1) 각운동량 = (각속도) × (회전 관성)

각운동량이 일정하면 회전관성 ↑ 각속도 ↓

2) 각속도: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

3) 회전관성: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회전체의 회전 관성 = 질량요소들의 회전관성 합

4)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 ↑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 회전체의 회전 관성 ↑

22.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회전 관성은 회전체에서 각속도 즉 회전하는 정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회전 관성이 클수록 정지상태에서 운동상태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돌림힘 자체가 각운동량 즉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 돌림힘이 없다면 회전을 멈추는 등의 상태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회전 관성은 회전 하는 정도와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글에서는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지면과의 마찰은 각운동량 각속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회전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크기와 질량이 같다고 했기에 질량 요소들은 같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속이 빈 쇠공의 질량요소들은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몰려 있을 것이고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의 질량 요소들은 회전축에서 표면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쉽게 정리해 질량요소를 5개라고 하면 쇠공은 질량요소가 표면에 5개 모두 몰려 있고 플라스틱 공은 각 거리마다 하나씩 분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기에 회전축과 가장 멀리 떨어진 표면에 질량 요소가 몰려있는 쇠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클 것이다.

질량 문제는 풀 때는 이렇게 같은 분자 5개 정도를 떠올려 주는 것이 좋다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시곗바늘 위의 두 점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각은 같기에 각속도는 같다. 대신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의 회전 관성이 작기에 각운동량은 더 작을 것이다.

실제 첫 문단의 각운동량을 구하는 식은 mvr 을 보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r (떨어져 있는 정도)과 v (속도)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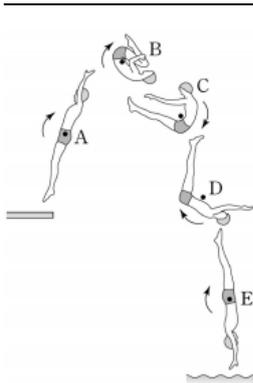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크기에 각운동량이 더 크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 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보기 독해: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회전 관성의 차이를 통해 각속도 변화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돌림힘이 없기에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같은 사람이기에 화하지 않음 단 질량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변호할 수 있음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B의 질량요소들이 회전축과 가장가까이 있기에 회전 관

성 작고 각속도가 가장 큼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 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회전 관성은 회전축과의 거리에 비례하기에 다리가 펼쳐 지면서 회전 관성은 커짐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 각속도가 가장 크기에 더 빨리 도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5 바퀴보다 더 많이 도는 것

[24-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 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 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세계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근거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2) 첫 문단 이해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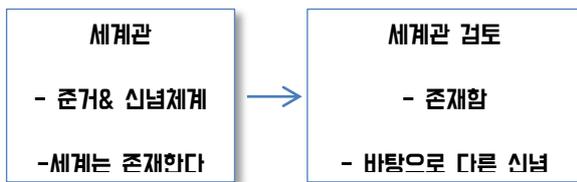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

"모순되지 않고 정합성"은 모두 세계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표현이다

'준거' '혼란스럽지 않아야 함', '정합적' '일관적'은 모두 관심과 검토와 연결되어야 한다

3) 예측하기

세계관에 관한 검토의 과정에서 가장 근원적인 신념만 제시할 뿐 다른 신념들과 내용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뒤에서는 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더 심화해서 어떻게 존재하든지 설명하거나 또 다른 세계관과 신념을 검토할 것이다.(A-A')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주제 독해>

1)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성질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주관적 속성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감각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계와 연결된다

<세부 정보 독해>

1) 주관적 성질: 색깔, 소리, 냄새, 맛

2) 객관적 성질로 여겨지는 것: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논쟁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는 신념 체계이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준거가 되는 신념체계이다

㉓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반실재론은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부정할 뿐 이것이 세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㉔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다

㉕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실재론자들은 인식과 상관 없이 존재하는 즉 정신과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한다

25.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보기 독해: 버클리는 무조건 인식에 기반으로 세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ㄱ/ 경험으로+ 구성- 버클리

ㄴ/ 존재한다= 지각한다 = 인식한다- 버클리

ㄷ/ 인식 이전에 무엇인가 있음- 버클리 아님

ㄹ/ 객관적 속성 있음- 버클리 아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 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첫 문단 독해>

1) 개념 정리

플래시 메모리: 수많은 스위치로 이루어지고 각 스위치에 0과 1을 저장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셀: 메모리에서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스위치. **그림이랑 같이 보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으면 1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으면 0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2) 첫 문단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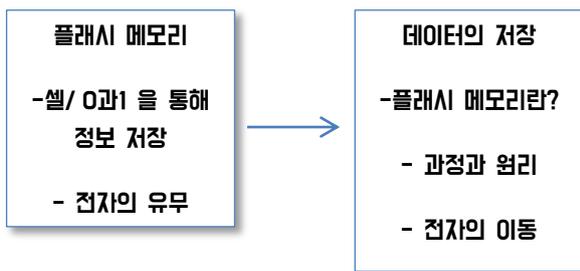
"수많은 스위치로 구성 각 스위치에 0과 1"

"이 스위치를 켜"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의 유무를 통해 0과 1"은 모두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데이터 저장의 원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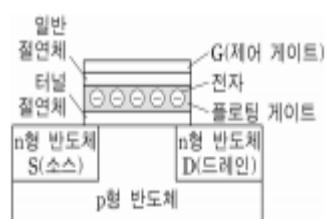
3) 예측하기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에 데이터 저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구체적인 과정과 원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플로팅 게이트에 어떻게 전자가 있고 없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고 읽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뒤에서는 플로팅 게이트에서 전자의 이동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 <K현상- 과정 원리>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에 의해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주제 독해>

1) 플래시 메모리의 정보를 읽기 위해서 전압을 걸어 놓는 것과 이로 인한 전자의 이동 그리고 반발들을 모두 전압을 걸어놓는 상태를 활용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세부 정보 독해>

1) 일반 절연체-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 VS 터널 절연체- 특정 전압 이상이면 전자 통과// 비교 대조

2) EPROM-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 개념 정의

3) EEPROM-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 // 개념 정의

4) 비휘발성- 전원차단시 데이터 저장 VS 휘발성- 전원 차단시 데이터 날라감 //비교 대조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전자와 전압을 통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사용 방법은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대상의 크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제작 원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대상의 단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27. 윗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이동도 G와 p형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 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일반 절연체는 전자 이동이 불가하기에 데이터를 한번 쓰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없고 이는 데이터를 반복 해서 쓰고 지울 수 없음을 나타낸다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5문단을 보면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로도 데이터를 지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EPROM의 장점인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셀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었다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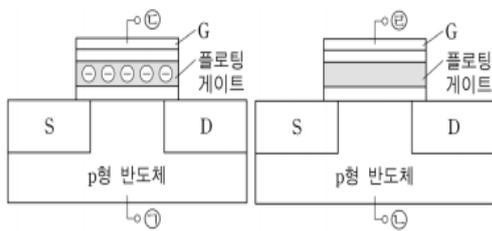
바른 국어 다른 결과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 터널 절연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력이 꺼져도 데이터가 날아갈 일이 없어 전력을 계속 공급해줄 필요가 없다.

28. 윗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 0>을 <0 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보기>



- *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 * 그림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 ⊖ ~ ⊕은 20V의 양의 전압이 가해지는 위치이다.

보기 독해:

우선 블록 단위 전체에 전압을 걸어주어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

다시 ⊖쪽에 양의 전압을 걸어 전자가 플로팅게이트로 이동하게 한다

- | | 1단계 | 2단계 |
|---|------|-----|
| ① | ⊖ | ⊕ |
| ② | ⊕ | ⊖ |
| ③ | ⊕과 ⊖ | ⊕ |
| ④ | ⊖과 ⊕ | ⊕ |
| ⑤ | ⊕과 ⊕ | ⊖ |

서성수 국어 6주 문제

<지문별 답>

13

445

532

32

541

4451

1242

45

31

123